

東醫壽世保元에서의 臟腑生理에 對한 小考

趙鏞台* · 宋一炳*

I. 緒 論

李濟馬의 四象醫學을 살펴보기 위하여 四象醫學의 臨床的인 面뿐 아니라 四象說에 대한 基礎的인 面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다.

특히 基礎的 접근에는 陰陽 五行的 접근¹⁾, 經學的 접근, 病證論的 접근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基礎的 접근에도 불구하고 四象醫學의 本意를 밝히는 데는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基礎的 접근들은 李濟馬의 四象醫學에 對한 獨創性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후학들로 하여금 다양한 基礎的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을 중심으로 한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등을 기초하여 四象醫學의 獨創性을 찾아보고 그의 철학적 內面인 性情에 대한 견해와 실제적인 人體의 臟腑와의 연계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II. 文 獻 資 料

1.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

曰事務

2.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天時極蕩也 世會極大也 人倫極廣也 地方極邈也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事務克修也 交遇克成也 黨與克整也 居處克治也

3. 領有爵策 臆有經論 臍有行檢 腹有度量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爵策不可驕也 經論不可矜也 行檢不可伐也
度量不可夸也

識見必無奪也 威儀必無侈也 材幹必無懶也
方略必無竊也

4. 耳目鼻口觀於天也 肺脾肝腎立於人也 領臆
臍腹行其知也 頭肩腰臀行其行也

5. 大同者天也 各立者人也 搏通者性也 獨行者
命也

6. 耳好善聲 目好善色 鼻好善臭 口好善味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7. 領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慾心

8. 人稟臟理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小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小陰人

9. 五臟之心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四維之
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高出於衆人之太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旁通於衆人之四象也

10.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清濁四不同中 有萬不同人慾之濶狹也 聖人與衆人萬殊也

11. 太陽人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12. 肺氣直而伸 脾氣栗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蓄 肺以呼肝以吸 肝肺者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腎以出 腎脾者出納水穀之府庫也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13.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下降 上升之氣過多則下焦傷 下降之氣過多則上焦傷

14. 頻起怒而頻伏怒則腰脅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迫蕩不定則肝其不傷乎

乍發喜而乍收喜則 胸腋乍闊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闊狹不定則脾其不傷乎

忽動哀而忽止哀則脊曲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屈伸不定則腎其不傷乎

屢得樂而屢失樂則背顛暴揚而暴抑也 背顛者 肺之所住着處也 背顛抑揚不定則肺其不傷乎

15.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固無可論 天稟已定之外 又有短長而不全 其天稟者則人事之修不修而命之傾也 不可不慎也

16. 太陽人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察於天時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非他也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

己也 怒情非他怒也

少陽人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怒衆人之相侮也 怒性非他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行於事務而哀別人之欺己也 哀情非他哀也。

太陰人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察於人倫而喜衆人之相助也 喜性非他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樂別人之保己也 樂情非他樂也

少陰人樂性深確而喜情促急樂性深確者 少陰之口察於地方而樂衆人之相保也 樂性非他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行於黨與而喜別人之助己也 喜情非他喜也。

17. 太陽之聽 能廣博於天時 故太陽之神充足於頭腦而歸肺者大也 太陽之嗅不能廣博於人倫 故太陽之血不充足於腰脊而歸肝者小也

太陰之嗅能廣博於人倫 故太陰之血充足於腰脊而歸肝者大也 太陰之聽 不能廣博於天時 故太陰之神不充足於頭腦而歸肺者小也

少陽之視能廣博於世會 故少陽之氣充足於背腎而歸脾者大也 少陽之味不能廣博於地方 故少陽之精不充足於膀胱而歸腎者小也

少陰之味能廣博於地方 故少陰之精充足於膀胱而歸腎者大也 少陰之視不能廣博於世會 故少陰之氣不充足於背腎而歸脾者小也

18. 太陽之性氣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恒欲處而不欲出

19. 太陽之情氣恒欲為雄而不欲雌 少陰之情氣恒欲為雌而不欲為雄 少陽之情氣恒欲外勝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恒欲內守而不欲外勝

20. 肺部位在顛下背上 胃脘部位在頷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在腎 胃部位在膈 故腎膈之間謂之中上焦 肝部位在腰 小腸部位在臍 故腰臍之間 謂之中

下焦

腎部位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 故脊下臍下以下謂之下焦

21. 水穀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者 水穀之都數 停畜於胃而薰蒸為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為涼氣 熱氣之輕清者 上升於胃脘而為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而為寒氣

22. 胃脘通於口鼻 故水穀之氣上升也 大腸通於肛門 故水穀之氣下降也 胃之體廣大而包容 故水穀之氣停畜也 小腸之體狹窄而屈曲 故水穀之氣消導也

23. 水穀溫氣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為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為神 入于頭腦而為髓海 髓海者 神之所舍也 髓海之髓汁清者 內歸于肺 濁滓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薰也

24. 水穀熱氣自胃而化膏 入于膻間兩乳為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 出于目而為氣 入于背脊而為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滓外歸于筋 故胃與兩乳目背脊筋 皆脾之薰也

25. 水穀涼氣自小腸而化油 入于臍為油海 油海者 油之所舍也 油海之清氣 出于鼻而為血 入于腰脊而為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清者 內歸于肝 濁滓外歸于肉 故小腸與臍鼻腰脊肉 皆肝之薰也

26. 水穀寒氣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為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 出于口而為精 入于膀胱而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滓外歸于骨 故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薰也。

27. 肺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髓海之清汁 入于

肺以滋肺元 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脾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清汁 入于脾以滋脾元 而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 凝聚其膏

肝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清汁 入于肝以滋肝元 而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 凝聚其油

腎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清汁 入于腎以滋腎元 而內以擁護液海 鼓動其氣 凝聚其液

28. 津海之濁滓 則胃脘以上升之力 取其濁滓 而以補益胃脘 膏海之濁滓 則胃以停畜之力 取其濁滓 而以補益胃 油海之濁滓 則小腸以消導之力 取其濁滓 而以補益小腸 液海之濁滓 則大腸以下降之力 取其濁滓 而以補益大腸。

29.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 則精神氣血生也 淺近狹小 則精神氣血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辨 肺脾肝腎之用 正直中和 則津液膏油充也 偏倚過不及 則津液膏油燦也

30. 髓海藏神 膜海藏靈 血海藏魂 精海藏魄 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

31. 頭腦之髓海 肺之根本也 背脊之膜海 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 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 腎之根本也 舌之津海 耳之根本也 乳之膏海 目之根本也 臍之油海 鼻之根本也 前陰之液海口之根本也

32. 心為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膻中 光明瑩徹 耳目鼻口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頷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33. 太陽人體形氣像 腦顛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顛之起勢 孤弱 少陰人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

(以上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四象人 辨證論)

Ⅲ. 總括 및 考察

1. 性情과 臟腑에 對한 生理的인 面

李濟馬의 四象醫學은 자료 1,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天, 人에서부터 四元的 生成原理을 갖고 四象에서 그 分化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格致彙의 反誠箴에서도 「易曰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兩儀心身 四象事物心身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³⁾ 이라하여 이제마의 四象은 實體的 概念으로서 宇宙 構成의 四大要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자료 11)에서는 太少陰陽人의 哀怒喜樂 性과 情의 作用에 따라서 肺脾肝腎의 氣를 盛하고 削하게 함으로써 性情이 太少陰陽人의 臟局大小에 關여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자료 16)에서는 위의 자료 1,2,11)을 합하여 나타나 있는데 太少陰陽人의 哀怒喜樂性을 聽視嗅味라 하여 이는 天機를 洞察하는 耳目鼻口의 機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太陽人의 哀性遠散은 聽하기 때문이며, 少陽人의 怒性宏抱는 視하기 때문이며 太陰人의 喜性廣張은 嗅하기 때문이며 少陰人의 樂性深確은 味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哀怒喜樂性은 性과는 달리 客體的 聽視嗅味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喜怒哀樂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⁶⁾ 또한 四端論에서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이라 하여 자료 13)에서 哀怒之氣 上升이기에 相成하고 喜樂之氣 下降이기에 相資한다.⁶⁾

자료 18)에서 性氣는 進退, 舉措, 靜動, 處出에서 설명하고 자료 19)에서 情氣는 雄雌, 外勝內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哀性極하면 怒情이 動하고 怒性이 極하면 哀情이 動하며,

樂性이 極하면 喜情이 動하고, 喜性이 極하면 樂情이 動한다는 것과 四象人의 性氣는 天機를 聽視嗅味하는 耳目鼻口의 機能으로 肺脾肝腎의 直而伸, 栗而包, 貫而緩, 溫而畜에서 나타나며⁶⁾ 四象人의 情氣는 四象人의 勇統於交遇, 雅立於薰與, 敏達於事務, 恒定於居處에서 怒·喜·哀樂情이 나타난다고 설명한 것⁶⁾에서 性과 情의 편차됨과 치우침이 비교되어 나타난다.

性은 넓은 의미에서 그 특성을 지니며 情은 대립되는 陰陽에서 서로 치우쳐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료 27)에서도 哀怒喜樂力으로서 各臟을 滋元하고 있다고 설명하여 臟局의 哀怒喜樂力에 결정적 部分을 關여함을 보여준다.

자료 29)에서는 人間의 精神氣血은 이와같은 耳目鼻口의 作用如何로 그 能力을 決定하게 되는데 이는 자료 11)에서 처럼 哀怒喜樂情이 肺脾肝腎을 削하게 하는 것을 性의 측면에서는 存其心養其性하고 命의 修其身益其命하여 人間의 邪心怠行을 除去함으로써, 耳目鼻口의 作用이 遠大廣深하여서 결국 精神氣血의 充滿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⁶⁾

결국 肺脾肝腎의 立於人은 耳目鼻口의 觀於天과 喜怒哀樂과 밀접한 關連성을 가지며, 이에 人間의 心性 또한 重要性을 지니서 臟腑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2. 構造와 臟腑에 對한 生理的인 面

자료 2,3,6,7)에서 耳目鼻口, 頭肩腰臀, 肺脾肝腎, 額臆膈腹의 四元的 構造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上下의 概念으로 살피진다. 周易에서 「乾坤天地之道 陰陽之本爲 ~하락」⁷⁾이라 하여 乾·坤卦가 처음나오는데 이것은 陰陽을 살필때 上下(天·地)의 概念이 우선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上下의 四元構造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자료 20)에서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를 설명하면서 肺脾肝腎의 部位와 胃脘 胃 小腸 大腸 部位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은 心과 耳目鼻口에 對한 李濟馬의 견해이다. 자료 32)에서 心의 能力이 他臟에 비하여 우월한 立場에 두고 있는데, 이는 四端論의 「浩然之氣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出於心也」라 하였고 자료 9)에서도 역시 心을 中央之太極이라 하였는데에서도 기인한다.⁶⁾ 그래서 자료 32)에서 우월한 立場의 心이 他臟을 관리하는 보다 한단계 높은 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중요한 특징인 耳目鼻口에 對한 李濟馬의 견해는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이라 하여 耳目鼻口에 對한 陰陽의 偏差를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기능적으로 耳는 無形의 소리를 前後左右 四方에서 들을 수 있고, 目은 事物을 左右 後方의 제한을 받으며 볼 수 있고, 鼻는 事物이 氣化한 상태에서 認知할 수 있으며, 口는 有形之物이 입안에 들어와야만 認知할 수 있다.⁶⁾

또한 구조적으로도 口鼻目耳의 순으로 分化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李濟馬의 견해는 자료 21)에서도 나타나는데 水穀之氣가 腑의 構造에 따른 作用에 따라 발현되어 진다. 특히 胃脘通於口鼻, 大腸通於肛門, 胃之體廣大而包容, 小腸之體狹窄而屈曲이라하여 해부학적 구조에 접근하여 그 作用을 설명하고 있다.⁶⁾

자료 23, 24, 25, 26)에서 다음과 같은 表를 만들 수 있다. ⁶⁾

四 氣	四 焦	四 宮	四 腑	四 知	四 海	四 臟	四 行	後四海
溫 氣	上 焦	耳	胃 脘	頷	津 海	肺	頭(頭腦)	髓 海
熱 氣	中下焦	目	胃	臆	膏 海	脾	肩(背脊)	膜 海
涼 氣	中下焦	鼻	小 腸	臍	油 海	肝	腰(腰脊)	血 海
寒 氣	下 焦	口	大 腸	腹	液 海	腎	腎(膀胱)	精 海

上記 表에서 역시 人體에 있어서 上下로 배속시키고 있다. 이는 上으로 陽氣에 치우치고 下로 陰氣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21)에서 水穀之氣가 腑의 形態學的 구조에 따른 作用에 의하여 胃에서 熱氣, 小腸에서 涼氣가 되어 그중 熱氣之輕清者 上升하여 溫氣가 되고 涼氣之質重者 下降하여 寒氣가 된다고 설명한 것과 연관성을 갖는다.

肺脾肝腎에 있어서도 자료 14)에서도 肺脾肝腎의 着處로 背頷 胸腋, 腰脇, 脊曲이라하였고 자료 12)에서 肺氣는 直而伸, 脾氣는 栗而包, 肝氣는 寬而緩, 腎氣는 溫而畜이라하여 陰陽의

偏差를 나타내며 肺以呼 肝以吸 脾以納 腎以出이라하여 陰陽의 對立的 關係를 나타낸다.

자료 13)에서도 哀怒之氣는 上升, 喜樂之氣는 下降한다하여 역시 陰陽의 上下의 偏差를 나타낸다. 이러한 氣의 陰陽的 偏差에 따라 자료 23, 24, 25, 26)에서도 人體의 水穀之氣가 溫, 熱, 涼, 寒으로 나타나 陰陽的 上下의 氣의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료 1, 2)에서 天·人에서도 分化의 기준이 陰陽의 偏差로 진행되어 나타나며 자료 33)에서도 이런 陰陽的 上下의 氣의 偏在와 機能 발달유무에 따라 그 太少陰陽人의 體形이 나

타나는 것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

결국 陰陽의 上下의 氣를 天·人에서부터 人體의 體形 및 臟腑生理에까지 一貫性을 두고 있다.

Ⅳ. 結 論

東醫壽世保元の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등을 살펴보고 臟腑의 生理의인 面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肺脾肝腎의 立於人에 있어서 耳目鼻口の 觀於天과 哀怒喜樂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이에 人間의 心性 또한 重要性을 가져서 臟腑에 그 影響을 미치게 된다.

2. 構造의으로 四焦는 上下, 陰陽關係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水穀之氣는 腑의 形態에 따른 作用에 影響을 받고 있다.

3. 陰陽의 上下의 氣를 天人에서부터 人體의 體形 및 臟腑生理에 까지 一貫性을 두고 있다.

參 考 文 獻

1. 金貞香,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對한 小考, 1988, p.21,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1기 중간발표.
2. 金鍾元,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對한 考察, 1990, p.28,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1기 중간발표.
3. 朴奭彥 格致彙 太陽社, 1985, p.287.
4. 朴奭彥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77, p.15.
5. 宋正模 「性命論」을 中心으로 한 李濟馬의 四象觀에 對한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1기 중간발표, 1988 pp.10~11.
6. 李乙浩·洪淳用,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1985, p.62, 63, 68, 71, 84.
7.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誠理會出版社 1978.
8. 韓周錫, 臟腑論을 中心으로 한 文獻的 考察, 1989, p.13,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3기 중간발표.
9. 미 상, 周易 保景文化社, 1986, p.52.